

교회 회 표

신성한 예배
진국임포 향상
민족 복음화
세계 사랑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02-8200 ©2002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2년 제3차 청지기훈련

"선 교"

이번 주 수요일06일부터 금요일08일까지,
저녁 7시 시작

"도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10월 16일(수) - 그리스도인의 명칭(별 3:15~18)

10월 17일(목) - 교회의 성교(별 16:15~16)

10월 18일(금) - 권결의 골짜기(별 3:14)

"선교, 우리 모두의 사명"

'선교'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던 청지기훈련이 이번 주 수요일에 다녔다. '선교'는 교회의 특장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임무가 아니라기에 '선교'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고,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하며,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기에 아니, 그보다 는 중한 모든 청지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하는 일만이 있기 위해 다짐하게 한 자리에 오아기로 한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들이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각성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편결의 골짜기에서 사서, 반드시 해심과 편을 선택해야만 한다. 한 주간 동안 새를 깨워 충성심으로 언덕으로 달려왔던 총현의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나사렛에 마음을 돌려서라고 믿고 다짐하는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자. 그리고 세단 복음으로 우리 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복음의 나팔로 세상으로 보내실 주님의 소리를 기쁘게 새기자.

교구별 · 지역별 좌석 배치

교구장 · 지도자 · 전도사 · 각 지역장 기도회

(요일 오후 3시 30분에 결성교회에서)

특히 이번 청지기훈련에는 좌석이 '교구별 · 지역별'로 배치 되어 있다. 각 교구의 지역장들은 해당교구로 회원들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기. 그리고 청지기들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팔을 들고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자신들 땅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라. 이를 위하여 교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30분에 가 결성교회에서 교구장 · 지도자 · 전도사 · 각 지역장 기도회가 열린다. 해당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라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주 요일 예배 메시지

종말의 형제들이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살전 4:1)

대성도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대(살전 1:3).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이요(살전 1:4), 믿음은 환기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서로 우와와 서로 붙은 자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대(살전 1:5). 그들은 믿음에 대한 소원은 바게 되나와 자기야를 버려서 2차에 파견당하셨던 110, 그난 속에서 그들은 온전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대(살전 1:10).

이러한 믿음의 행태를 행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를 찾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신생자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들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이러한 이들은 교회에서의 봉사와 모든 생애조차도 자신의 만족이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하지 않으셨다(로 15:2-3). 주께서는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이 오셨으며, 자신을 대속물로 주사기까지 하셨다(20:18). 또한, 이들은 '인간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인간적 인정과 영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의식대로 종결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고 선 언했대(골 1:10). 이보다도 역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2:14) 강하게 말했대(고 2:14)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요(로 8:8) 믿음의 자들이요(로 11:16).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고 오묘한 것 말함 / 10월 11일 금요일

구약에 나타난 선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본론)

1. 구약에 있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④ 사무엘하 7장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전체에 중심적으로 흐르는 선교적 관점으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창 3:15), 노아를 통해서 주신 '셈의 후손에 대한 언약'(창 9:27),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창 12:1-3)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선교적 관점은 모든 세대를 '축복'과 '저주'라는 두 범주로 나눈다는 것을 증명했었다(창 27:28; 28:14).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3에 의거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을 단축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 3:8).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의 여지없이 신약과 구약이 복음과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좁은 구제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자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선교의 사명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애굽에서의 재앙 역시 하나님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출 9:14,16). 그리고 출애굽기 19:4-6에 나타난 언약 역시, 주님의 모든 민족들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교적 임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벧전 2:9). 특권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모든 족속을 향한 선교적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 17장에 기록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시편 89편에 자세히 설명과 해석으로 나타난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은(신 17:14-15) 이스

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사 8:4-6).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했다(삼상 14:47). 그러나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 왕으로 삼으셨다(삼하 7:1-2).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삼상 17:1-2)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거절하셨고(삼상 22:8). 그 대신에 매우 놀라운 언약을 그와 맺으셨다(삼하 7:11). 바로 구원을 위하여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씨'를 통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다(삼하 7:12, 대상 17:11-14).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다(삼하 7:16, 시 89:3-4, 20: 26-29; 29:5-37).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감격한 다윗은 기도했다(창 7:18-19).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속에 '여호와와 이름'이 특별히 눈에 띄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주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 15:2,8에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것으로, 그에게 '한 씨'를 약속해 주신 때에 부르던 '전능하신 주'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사무엘하 7:19에서 '인간의 규례대로 하겠다'는 말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곧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씨'를 보내시며 이루어 가심을 보여준다.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 들리지게 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처음부터 '씨'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선교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약속의 사람, 메시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으로 성취되는 모든 열방과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살전 4: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이들은 '올바른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에(대성도 39~10). 또한 이들은 '자기 생활에 열매이지 않은 자들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지불된 주의 소유임을 아는 자들이며(대성도 24). 오직 하나님의 면에 사는 자들이고(고후 6:14-7), 감지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다(대성도 21). 그리고 이들은 '몸을 기쁘게 한 신 재물로 드리는 자들'이다(로 12:1).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시 63:30-3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

주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요일 3:2).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며'(사 56:4-5).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신대(대성도 26: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대(대성도 18).

진실로 주께서는 세상의 소욕에 합류하지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오직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다. 그 분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에도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부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의 형제와 나의 기쁨 대가를 기쁨을 기쁘게 채우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일이다.

Something great happened in Antioch

Acts 11:19-21

"...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large number who believed turned to the Lord"...

These three short verses speak about something special, something incredible, something great that happened in Antioch. For the very first time in history, they Gospel was preached to Gentiles. Prior to this spectacular event, the book of Acts tells us that Philip preached to the Samaritans in the city of Samaria (8:4&5). Samaritans were a mixed people, half Jewish and half Gentile. Other believers were preaching, but to Jews only. In chapter 10, you find Peter involuntarily preaching to Cornelius, a commander in the Italian cohort. Cornelius was a semi-proselyte to Judaism, accepting Jewish beliefs and practices but stopping short of circumcision. He feared God and was anxious to hear the Gospel. What's different about today's Bible verses is that certain believers didn't go straight to the Jews or Samaritans, but voluntarily came to the Gentiles. Indeed, something different happened in Antioch.

Three different steps were taken to prepare for the spreading of the Gospel. First it was preached to the people who were half-Jew and half-Gentile. Then it was preached to those who wanted to hear. Finally, it was preached to those who didn't know anything about it. My friend, the purpose of the church is not to wait for the invited, but to go directly out and find them. That's how and why the Christian church multiplied itself throughout the world. It's here in these small verses that the greatest thing happened in history. When you analyze the situation, you can see that persecution brought scattering, but the scattering didn't quiet matters. Instead, believers preached, not from human communication but from the power of God working through and within them. The preaching of God's Word through His Spirit made them great witnesses. When you really look at the persecution, evangelism, power, and witness that took place in the early church, you can see God's plan for salvation.

Stephen, the first martyr, was stoned to death outside of Jerusalem because of his great faith. He was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as can be heard in his last sermon (7:1-53) and seen in his dying words (7:59&60),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and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His death caused Christ's people to scatter away from Jerusalem, "So then those who were scattered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at occurred in connection with Stephen made their way to Phoenicia and Cyprus and Antioch,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to Jews alone" (v. 19). The idea was to lessen the impact of the Gospel, but the reality was the opposite. The church didn't die and it didn't disappear. The believers who were scattered spread the Good News and the church grew and grew, all over the world. Wherever they went, the Gospel was preached and the church was built up. My dear friend, every week when we scatter, we must preach. We should live our daily lives for the glory of God. The church started from persecution, and it

continues this day still under persecution.

The persecution and scattering of Christians led to evangelism. Believers began speaking to the Greeks, speaking about the Lord Jesus, "But there were some of them, men of Cyprus and Cyrene, who came to Antioch and began speaking to the Greeks also, preaching the Lord Jesus" (v. 20). Until this day, believers were only preaching to the Jewish crowds. Now, for the first time, the fulfillment of the Lord's command began,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9-20). Amen. Finally,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 Gentiles. The start of worldwide evangelism is begun! The great happenings in Antioch became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future. In essence, Antioch became the center from which all missionary endeavors prospered.

The key to the successful evangelism of the early believers was in the power they possessed.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large number who believed turned to the Lord" (v. 21).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Isn't that power? A lot of people cam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of the power invested in God's children. Who were these people? They were the kind of people who worshipped idols, different gods. What happened to them? They heard the Gospel, believed in it, and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y became born again Christians. Praise God! That's why the Gospel spread throughout the earth.

A wonderful thing happened when the Jerusalem church heard this news.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and Barnabas called on Saul. What great witness took place! Together they preached for an entire year, "And for an entir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considerable numbers; an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v. 26). One year is actually not a very long time for the work they had to do, but great blessings from God came upon their time. And, right here, believers got their name—"Christians". The Bible doesn't mention the names of the men from Cyprus and Cyrene who first witnessed to the Greeks in Antioch. We don't even know how many there were, but we do know they were true disciples, true missionaries. We do know they were the ones who first preached to the Gentiles. As such, the church of Antioch was founded by unnamed missionaries. These special believers didn't care about recognition, fame, and respect from others. They don't care that their names aren't written down in church history and here in today's passage because their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the eternal book of God. Their names are recorded where it truly matters. Their great witness made Antioch a Christian city on which the Christian church started to build. 

안디옥에서 일어난 큰 일

행 11:19~21

“...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대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이방 땅

오늘의 짧은 본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매우 특별한
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
은 역사상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
다. 물론, 사도행전은 이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앞
서,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을 전한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행 8:4~5, 사마
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서 받은
유대인이고 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도 베드로가 맘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
에 사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
게 가서 전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고넬료는 유대신앙
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로 절반은 개종한 사람이
었습니다. 그는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듣고 싶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
른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유별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
떤 신자들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않고, 자
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뭔가 다른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전파의 세 단계

복음전파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
니다. 그리고 나서는 듣고 싶은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
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초대받은 자들
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
가서 찾아 데려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회가 전 세계에 걸쳐 성장하게 된 과정이요 이유인 것입
니다. 그 핵심이 이 짧은 구절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
황을 분석해 본다면 필립이 성도들을 흠여지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흠여지는 것
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흠여
져서도 설교했습니다. 인간적인 의사소통으로써가 아니
라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들은 위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필립과 전도와 권능과 증거를 볼 때 우리
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흠여진 자들로 말미암아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은 그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예
루살렘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테반의 마지막
설교와 유언에서 잘 나타나듯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
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59~60).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
터 사방으로 흠여지게 만들었습니다. “때에 스테반의 일
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흠여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
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19절). 필립은 복음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소멸되거나 사라지
지 않았습니다. 흠여진 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
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르쳤고 회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우리가 흠여질 때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필립으로부터 출발했으
며 오늘날에도 필립 아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발판

그리스도인이 필립을 받아 흠여진 것은 전도로 이어
졌습니다. 신자들은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
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20절). 당시에 신자들은 유대인에
게만 전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주께서 명
령하신 바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므로 너희는 가
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아멘. 마침내 복
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위대한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안
디옥은 모든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한 선교중심
지가 되었습니다.

주의 권능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
던 비결은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권능 때문이었습니
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대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
니다. 주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은 우상과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
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
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세상에 퍼진 이유입니
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
로 보냈고 바나바가 사울을 부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
청난 증거입니까? 그들은 한 해 동안 함께 전도하였습니
다.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26절).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비해
일 년은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
운 은혜가 그 시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자들
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헬라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전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였는지도 모르며, 그들이 전파 제자들이거나 선
교사들이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은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
실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선
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특별한 신자들
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나 명예나 존경을 바라지 않
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교회사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올라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
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말
로 중요한 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증거는 안
디옥을 기독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기독교 도시로 바
꾸어 놓았습니다. ■



김성관 목사

최초 우리의 계획은 '르보브'라는 도시에서 문화와 격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호·노방·초대전도 등의 사역을 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만나는 군인들마다 불심검문을 요구하며 우리들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즈그라트'라는 곳에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집시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사역직을 옮기기로 했다.

우즈그라트의 집시촌이 워낙에 빈민 지역이라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곳이다 보니 군인과 경찰의 손이 그곳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이었다. 우리의 최초 계획과 조금 달라 당황스러웠지만, 이 곳으로 보내진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집시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집중점이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자 우리의 사역은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집시촌에서는 1, 2, 3지역으로 나누어 전도를 하였고, 폐결핵 병원, 집시촌 학교, 고아원 등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르보브에 있을 때는 사역이 계속 막히는 느낌이었었는데, 이 곳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늘 돕는 자들이 나타났다. 대원들은 사역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놀라워했다. 가는 곳마다 집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도까지도 복음을 듣는 모습과, 집시촌과 폐결핵 병원 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 받고 새 소망을 갖는 놀라운 광경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다. 이 곳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꺼리는 곳이었고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 우리도 오고자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원들 모두가 함께 느낀 사실은 이번 선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선교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고집하고 어위할 때는 장애물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고 따라가니 마치 물 흐르듯 순조로웠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교 기도회로 모입니다"

2002년 1·2차 단기선교에 700여 명의 성도가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금번 3차 단기선교단을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파송될 3차 단기선교단과 복음이 전해진 1·2차 단기선교사역지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칼릴리움

시간: 주일 오후 4시~4시40분

자극/ 1) 1·2차 단기선교를 다녀온 자 2) 3차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자 3) 선교에 관심있는 자

선교사 이야기

'난 곳 방언으로' 캐머런

19세기 초반 해도 자국어 성경을 가진 민족이나 종족들은 서구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다. 1900년 이후에야 성경의 주요 부분이 1,000가지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번역 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 WBT)에 따르면 전세계에 약 5,000개의 언어가 있고 아직도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3,000여 개의 언어들이 있다고 하니,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번역이라는 직업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번역 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 WBT)의 설립자 윌리엄 캐머런 타운센드(William Cameron Townsend)이다. 캐머런은 대학교 때 선교의 도전을 받아 남미 성경 관 매원으로 자원했다. 그는 20만 명 정도의 카키컬(Cachiquel) 인디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페인 성경 판매를 담당했는데 그 모든 일이 헛일처럼 느껴졌다. 스페인어를 모르는 그들에게 스페인어로 된 성경이 나눠주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된 당연한 일인가. 그들은 성경을 나눠주는 캐머런에게 다음과 같이 묻곤 하였다. "당신네 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우리들도 모를까?" 이런 상황은 캐머런으로 하여금 번역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언어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동사 하나가 수천 가지로 변화되는 카키컬 인디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그의 기나 긴 노력과 아내의 도움으로 10년 만인 1929년에 카키컬어 신약성경의 번역을 완료하였다. 그것을 기점으로 그는 번역 사업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윌리엄스 캠프를 설립하였다. 큰 포용력을 가진 캐머런은 윌리엄스 캠프의 성경 번역 사업을 인종·성·이념·교파에 의해 제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당시 그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선교지 원주민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다. 성경은 선교사들처럼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 받는 일도 없다". 이런 확신과 믿음의 그로 하여금 성경 번역 사업에 일생을 전념해 하였고 72세의 노구에 또 러시아어를 배우는 열의를 발휘하게 만든 열정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새로운 선교 영역을 제공하였다.

(루스 터커의 '선교사 열전' 예서)

심자가 ⑫

구속주(救贖主)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자가 구원을 성경에서는 '구속(救贖)'(redemption)이라는 또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상업적 용어인 '구속'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로서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자가를 구속의 이미지로 생각할 때, 그 강조점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길 만드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희묵'이 심자가에 의하여 진정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춘다면, '구속'은 심자가에 의하여 죄인들이 속함을 받아야 하는 바, 죄인들의 궁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저당 잡힌 재산을 회복하거나, 도살자에게서 동물을 건져내거나, 혹은 사람을 노예 상태나 심지어 죽음에서 구해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값을 누군가에게 지불해야만 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속건에 관한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자의 온 것은 심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막 10:45). 이 말씀은 우리는 포로 상태에 있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던 오직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속전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 자신의 생명을 담시고 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이미 몰수된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우리 생명의 대신에 그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비싼 값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그의 '피'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그리스도의 심자가의 보혈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 즉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8-20)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바로 이 '구속'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개념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종 노릇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직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를 위해 사는 참된 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성욱 목사)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싶어요

허윤정 (대학부 2학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벧전 1:6).

우리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저번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얼마나 많이 마음에 방황을 하였는가? 현실적으로는 아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속 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주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니라" (벧전 1:7).

동기들 중에는 3수생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도 잘 나오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수련회와 여러 행사에도 잘 참여하려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동기들 볼 때 마다 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흐릿한 마음이 든다.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의 참 믿음이 드러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것 같다. 힘들 때일 수록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셨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벧전 1:8).

하지만 그럴 때에도 감사하려면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에 많이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살아 가면서 웃으면서 지내는 날 만은 아닐 것 같다. 살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지치는 날도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 같다. 당장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루 하루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9).

구원의 소망! 믿어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학부 내에서의 기도제목이 되었으면 한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박원영 (대학부 교사)

생활에 한 번 쉼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줄어지고,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며,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일췌합니다. 저 역시 대학생활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항상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던 제 자신을 볼 때면 일의 결과를 보고서도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이 납니다. 제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제 삶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얼마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제 삶의 현재에 대한 심각한 반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make our home with him)" (요 14:23).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실로 가셔서 언젠가는 그들을 영접하실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전 제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되신 그 분께 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 속 여기저기 어지럽게 채워져 있는 것들을 향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신 사랑으로 제게 오셔서 보잘것 없는 제 마음에 '처소'를 삼으신 그 분만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다시 한 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알게된 사실, 제 영혼에 분명히 일어난 이 사실을 전 평생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가하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all understanding)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4-7)

성도의 죽음 준비하기

죽어가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것에 대한 집착

본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가 받아들이야 할 죽음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천국과의 연결이며, 영생으로 가는 통로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이며, 살아있는 동안의 신앙이 참이었는지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제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주간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즉 성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일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일종시간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빛의 역학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죽어가는 사람을 찾다니며 취재했던 경험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환자의 강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지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울며 기도하고 원망하다 처절하게 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처절하게 집착하다 가는 사람들은 본인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돌보는 자의 신앙 문제가 큼니다. 돌보는 자들이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소망감으로 느껴, 남아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주님에서 그렇게 부끄러워 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결망을 확정시키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기도하여 살리시고, 기도한 히스기야를 살게 해 주신 적은 있지만, 그것이 공식처럼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감사할 것이지만 우리가 요구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딤후 4:18).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살겠소' '당신은 죽겠소' 하는 말이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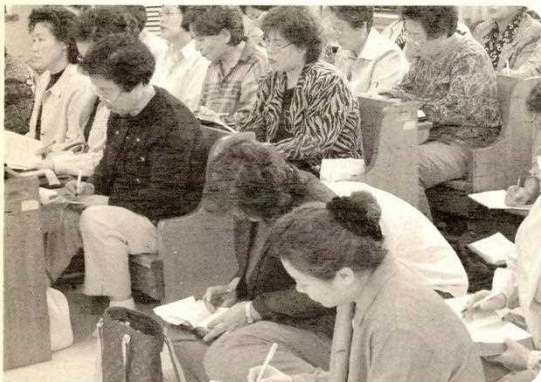
어떻게 이렇게 말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많습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그저 함께 있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말이죠. 이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으로 우리는 그 귀중한 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것은 매우 감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믿는 것에 위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꼭 육신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듯 대화하고, 기도하며, 축복해주고, 아무런 주저하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역장 영성훈련

베데스다 못에서

10교구 이상록 목사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표현합니다. 구세주로,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빛이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참 생명과 안식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믿는 자에게 실제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기쁨을 주시며, 빛으로 나타나시고, 참 안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고 '물이 동한다'는 현상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으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 목표상실은 주를 의지하지 않음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병을 고칠 만한 것을 알고 의지했다면 병 낫기를 원한다고 말했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병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기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병자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병자와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하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구역예배와 우리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병자가 예수님보다 연못을 더 의지한 것처럼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의미, 다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믿음이 없는 병자였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완전한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병자는 바로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입니다. 귀머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머거리가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귀가 열렸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갑자기 믿음을 키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긍휼하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신적인 권능입니다.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려하지 마십시오. 복음 자체, 즉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십시오. 병자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연못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갖고있던 지식이 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버려야 완전한 주의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권요셉 기자)

다음 주일 찬송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Fredrick W. Faber, 1814-1863)가 1849년에 작정한 것으로, 히브리서 12장1절의 '허다한 증인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찬송이다. 그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허다한 사람들의 유산이다. 참형을 당한 바울,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 물에 빠져 순교한 심포로사, 불 속에서 순교한 폴리카르pus와 같이...

- 1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 2절: 죽 음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만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박자 곡의 부드러운음이 있으나 각각의 음마다 가사를 소리에 실어서 노래해야 하며, 각 프레임(모두 4마디씩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정확히 지켜서 노래한 후 숨을 쉬도록 한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되어야 할 것이다.

(찬양위원회)

양영실

2교구 임지현 집사(여52세) 난소암 말기로 미국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료에 불가능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평안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교구 최종배 집사(남58세) 간암 초기로 지난 목요일 수술 받았습니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 이정자 권사(여77세) 심장이가 좋지 않아 입원 중입니다. MRI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심장국 성도(남72세) 위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체중도 급격하게 줄었으며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임정주 성도(남68세) 안(눈)암으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치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창숙 성도(여76세) 폐렴으로 입원 중인데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9교구 류동호(남16세) 사탕부 형제인데 심한 경기(Shock)로 의식을 잃어 3주가 지나도록 혼수상태입니다. 빨리 의식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허천우 ♥ 임영님 성도를 소개합니다



1남 2녀를 둔 부부입니다. 남편 허천우 성도는 요리연구가인데, 성도가 개발한 해물토핑제가 지금은 흔하게 대하는 음식이지만 15년 전에는 대단한 인기였다고 합니다. 아내 임영님 성도는 세례교인으로 교회 다니지 6년 가량 했습니다. 허천우 성도는 55년을 살아오면서 마음 깊은 곳의 양심을 저버린 삶에 대해 죄사함 받기를 원했고 교회에 나오면 용서도 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던 중,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질적, 마 음적으로 도움을 준 충청교회 김사님의 전도와 헌신을 보며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에 나오던 날, 언제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매대로 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 활 속에서 느껴집니다. 매주일 새가족부 집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담임집사님이 기 억에 남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집 귀동음이 태아가 두 살 때인 98년부터 우리 가족은 출현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서 20분 거리이지만, 아이가 이리고, 내가 나태해서 주일이면 영아부와 대예배를 시간에 겨우 맞춰 나갔곤 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구역장 J집사님을 만나고 일어난 변화이다.

금요일이면 구역예배가 기다리기도 재미있었다. 어느 날인가 새벽예배에 나가고 싶다고 했더니 J집사님께서 짐까지 차를 몰고 오셨다. 그렇게 시작한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다. 짐까지 시시때때로 바래다주곤 하시던 J집사님을 생각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눅 12:31). 라는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새벽기도, 구역예배, 수요일예배, 목요일성공부, 금요일회, 주일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나 자신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어느 선배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다. "성경을 읽어봐, 정말 달다구나" 학식서지 나 자신은 말씀을 느껴보지 못했기에 이 표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다.

2년 전 유아부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늘 부족하고 의심했던 내가 교사가 되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준비된 자의 모습은 달랐다. 봉사할 때의 선생님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주는 자의 모습이었다. 나도 교회 율리 안에 그냥 서있고 싶지 않았다. 적극적인 예배 참여와 봉사할 곳을 찾는다면 기회는 많은 것 같았다. 다만 현실에 편한함을 추구한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리라.

2002년은 너무 감격적인 한 해다. 고령이신 시부모님께서 결단하시고 교회에 나오셨다. 주일 아침이면 새벽 기도서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 하나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되돌리는 순간순간이 정말 감사하다.

삼 살에서 항상 물음표를 던져주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사는 게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해요.

최성진 (유아부 교사)

진리의 샘

요한복음(John)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어느 학자가 요한복음은 '한 소년이 죽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으나, 동시에 커다란 동상'이 해를 쳐야 능히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호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Leon Morris). 요한복음, 생명의 말씀사, 이것은 요한복음이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예수를 처음 믿는 이들에게 알맞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연구와 묵상을 필요로 하는 성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목적을 기억하고 읽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마다 목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기록목적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는 모든 사건이나 교훈이 이해되고 이해하는 결단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서 이해 할게 되지 않으면서 이 구절을 연결시켜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마치 방정식처럼 결론을 알려주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서 독특한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나는...이다"(I am...)라는 표현입니다(이 표현은 요한복음 3:14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 I AM WHO I AM). 이 표현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어투로서, 요한복음에서 모두 일곱 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직이나 어떠한 사건, 또는 특별한 계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과 연관되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나는...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과 연관된 사건이나 문장의 전후(前後)에 기록된 계기를 살펴보고,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시·편·묵·상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각종 기계설비, 교통수단, 대중매체의 최신 경향을 따르지 않고는 도태될 것이라는 압박이 우리의 목을 조여 옵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좇고자 즉각성과 인위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탐색과 해결,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신한 것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자투리하고 미련한 것이므로 다양한 삶의 변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구속의 계획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을 '제자'(弟子), 또는 '순례자'(巡禮者)라고 합니다. 제자는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자'란 뜻이며, 이런 자들은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천국을 향하기 때문에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는 이 여정의 '길'이 되시며(요 14:5-6),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120-134편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송가(頌歌)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는 이 찬송들은 시편 120-134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일 년 세 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며 그의 계명을 지킬 의무와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찬양했던 때, 이 열 다섯 편의 노래는 제사로서의 기쁨을 접어 두고 삶의 타락을 떠나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앞에서 부르는 시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빌 3:14)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곧,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정 중인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방향 감각을 갖도록 해 주는 찬송입니다.

시편 120편

'회개'의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어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어호와여 기쁘고 입술과 쾌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네 귀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달랠고
창사의 날가로온 삶과 로망나부 솟불이리요
배에 유하며 계단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보다
내가 회람을 미행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회람을 원할 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시 120).

시편 120편에는 풍부한 성경적 따위는 없고, 오히려 마음이 영 불편해지는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ટે로부터 정성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안심이 없고는 싸움으로 틀립니다. 사실상 세상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 온 것과는 다릅니다.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더 나 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모든 모든 인간은 자립적이고 태생부터 선하여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두뇌, 노력, 시간을 쪼며 투자하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의 증거들을 읽으면서도 경멸의 잿바퀴를 돌리는 거짓말의 유혹에서 벗어 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조금이라도 나자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못하면 인달이 나고, 원망이 쌓여 분노가 커지고 이것은 폭력으로 분출됩니다.

"어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자신의 창조와 구속 사역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의해 모든 거짓은 폭로되며, 이 때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버렸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분을 믿고 그 사랑에 응하여 명령을 따르므로 새 생명에 참여함을 깨닫습니다.

"어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쾌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어호와께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고백으로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인간의 거짓된 입술과 쾌한 마음 하는 자신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에게 근거한 정체를 삭제해버리고, 세상을 논할 때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며, 우리의 몸 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것이 성령의 전(殿)이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작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거짓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다음주에 계속) (임혜경 기자)



4. 총허구획이 화기종이 더거를 완성하는 비율 보다 20%을 대기종 득표수로 오시기 바람.